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채널 구독하기

Weekly 제162호

2025.11.20.(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미·중·반도체	美, 엔비디아 최첨단 AI 칩 수출금지	한국·철강	철강업계, 반덤핑 관세 부과에도 가격 그대로
중국·ESS	CATL-하이퍼스트롱 ESS용 배터리 계약 체결	일본·배터리	도요타, 美에서 배터리 공장 첫 가동
미국·자동차	GM·테슬라, 중국산 부품 제외 추진	중국·철광석	中 소유 기니 대규모 철광산 가동
중국·희토류	中 수출통제로 이트륨 가격 급등	대만·반도체	대만, 이종용도 기술 수출통제 강화 예고

공급망 이슈 포커스

미·중·반도체	[미·중 공급망 이슈 돋보기]	엔비디아 AI 반도체 칩을 둘러싼 美-中 갈등 구도
한국·철강	[데이터로 읽는 공급망]	중국·일본산 철강 반덤핑 관세 부과에도 열연강판 가격 여전히 낮아
중국·ESS	[시가 선정한 공급망 이슈]	CATL, 하이퍼스트롱과 대규모 ESS용 배터리 공급계약 체결

산업·품목 심층분석

글로벌·반도체	AI 반도체 발전이 이끄는 첨단 제조산업의 미래
---------	----------------------------

원자재 뉴스 PLUS

에너지	인도, 수입선 다변화 위해 미국산 LPG 수입 계약 체결
-----	---------------------------------

II. 월간 공급망



미국 중·대형 트럭 신규 관세 조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I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아시아 탄소 가격제 현황과 시사점

IV. 공급망 소식통



2025 KOTRA 수출 중소기업 ESG 공시 대응 워크숍 (~11.20.)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연번	주요 공급망 이슈	일 자	이슈 내용	자료원
1	미-중, 반도체 美, 엔비디아 최첨단 AI 칩 수출금지	11.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최신 AI 반도체 칩 블랙웰 시리즈를 해외 판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함 ✓ 中은 10월 공표한 수출통제를 1년 유예하고, 美는 '수출통제 50% 규칙(Affiliate Rule)'을 1년 유예함 	로이터
2	한국, 철강 철강업계, 반덤핑 관세 부과에도 가격 그대로	11.8.(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日 열연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국내 열연강판 가격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음 ✓ 이는 대만산 물량 유입과 보세구역을 통한 우회 수입으로 인해 관세 효과가 상쇄되었기 때문임 	뉴시스
3	중국, ESS CATL-하이퍼스트롱 ESS용 배터리 계약 체결	11.14.(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터리 제조업체 CATL과 ESS 통합기업 하이퍼스트롱이 10년 장기 협력 계약을 체결함 ✓ CATL은 3년간 200GWh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올해 글로벌 ESS 수요의 약 30%에 달함 	pv 매거진
4	일본, 배터리 도요타, 美에서 배터리 공장 첫 가동	11.12.(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요타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배터리 제조시설에서 첫 자동차용 배터리 생산에 돌입함 ✓ 또한 도요타는 향후 5년간 100억 달러 (약 14.7조 원)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함 	CNBC
5	미국, 자동차 GM·테슬라, 중국산 부품 제외 추진	11.12.(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M과 테슬라는 공급업체들에 중국산 부품을 배제할 것을 지시함 	로이터
		11.15.(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슬라는 네바다주 생산시설에서 내년에 자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제조를 준비하고 있음 	로이터
6	중국, 철광석 中 소유 기니 대규모 철광산 가동	11.15.(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기니의 시만두 철광석 광산이 이번 달 가동될 예정 ✓ 시만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미개척 철광석 광산으로, 매장량이 50억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SCMP
7	중국, 희토류 中 수출통제로 이트륨 가격 급등	11.1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토류 원소인 이트륨 산화물 가격은 올해 약 1,500% 급등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지난 4월, 中은 이트륨을 포함한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한 바 있음 <p>* 디스프로슘, 테르븀, 사마륨, 가돌리늄,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p>	mining.com
8	대만, 반도체 대만, 이중용도 기술 수출통제 강화 예고	11.18.(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은 첨단 반도체·3D프린터·양자컴퓨터 3개 품목과 18개 항목을 수출통제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표함 ✓ 조치 시행 전 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공고일로부터 60일간 검토 기간을 운영할 예정 	로이터

주간 이슈 포커스

1 마·중 공급망 이슈 돋보기

마·중, 반도체 엔비디아 AI 반도체 칩을 둘러싼 美-中 갈등 구도

트럼프, 엔비디아 블랙웰 칩 수출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언

-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은 CBS방송 시사프로그램 '60분'에서 엔비디아 블랙웰 칩을 미국 외 국가에는 절대 판매하지 않겠다고 발언함
 -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에도 최고 성능 칩의 공급을 제한하여 기존보다 강화된 수출통제를 시행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10월 말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현지 영업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말하며 “현재로서는 중국 수출 허가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힘
-  지난 10.31일, 엔비디아는 경주 APEC 회의를 계기로 한국 정부와 주요 4개 기업(삼성전자·SK그룹·현대차그룹·네이버클라우드)에 최첨단 AI 칩 26만 장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공급 예정인 최첨단 칩에는 'GB200 그레이스 블랙웰'이 다수로, 트럼프 행정부가 최첨단 AI 반도체 칩 수출을 우방국까지 제한한다면, GPU 26만 장의 국내 도입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있음

출처: 로이터(11.4.), WSJ(11.3.)

中, 엔비디아 칩 인도네시아 통해 우회적으로 확보

-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상하이 기반의 AI 스타트업 INF社가 인도네시아를 경유해 엔비디아 최첨단 블랙웰 AI 칩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월스트리트저널은 칩 이동의 전체 과정과 관련 기업들을 모두 추적하여 아래와 같이 미국 기술이 중국 기업에 전달된 4단계의 경로가 확인되었다고 보도함

단계	내용
1	엔비디아가 AI 서버를 제작하는 글로벌 파트너사*에 칩을 판매함 * 일례로, 美 실리콘밸리에 있는 에이브레스(Aivres)는 中 기술기업 인스퍼(Inspur)가 지분 1/3 보유한 회사임. 인스퍼와 그 계열사는 美 제재 목록에 등재되어있으나, 미국 내 법인인 에이브레스는 엔비디아와 거래가 가능함
2	엔비디아의 파트너사는 미국 내 법인 중 중국이 지분을 보유한 에이브레스와 AI 서버를 거래함
3	중국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인도네시아 통신사에 엔비디아 칩이 장착된 AI 서버를 판매
4	인도네시아 통신사는 중국의 AI 스타트업 INF에 AI 서버를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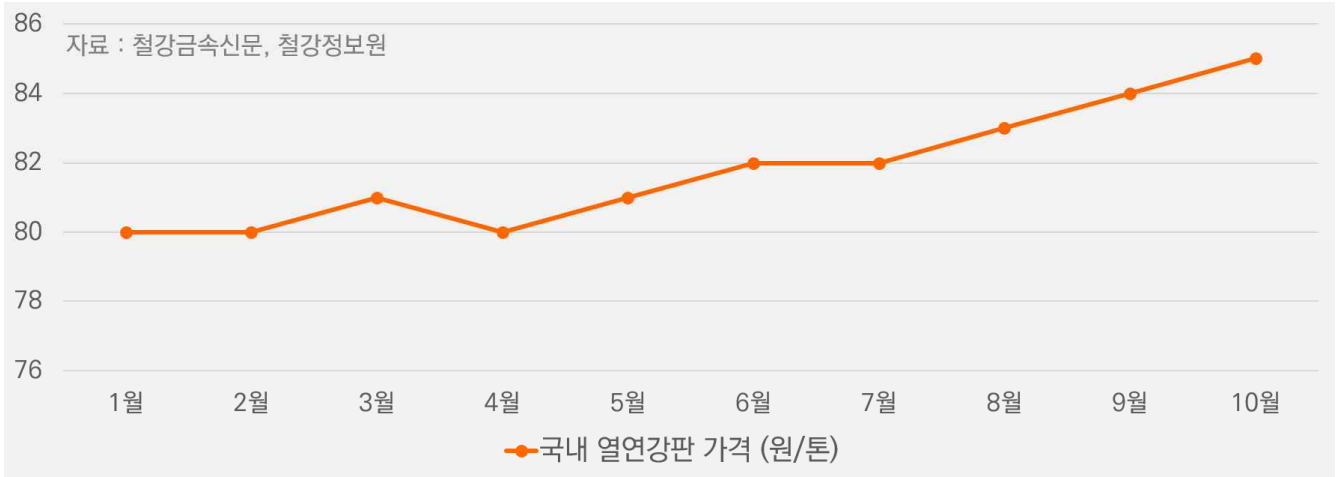
-  이로써 총 2,300개의 엔비디아 첨단 AI 반도체 칩이 INF 테크에 제공되었으며, 해당 회사는 이를 통해 금융 및 제약 분야 등 연구용 AI 모델 훈련에 사용할 예정임
-  이에 INF는 군사 관련 연구는 하지 않으며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인도네시아 통신사는 INF가 엔비디아 칩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해명함. 또한, 엔비디아 측은 법무팀이 모든 글로벌 파트너사를 심사한 뒤 제품을 공급한다고 입장을 밝힘

출처: WSJ(11.13.)

② 데이터로 읽는 공급망

한국, 철강 중국·일본산 철강 반덤핑 관세 부과에도 열연강판 가격 여전히 낮아

지난 9.23일부로 잠정 부과된 중국·일본산 열연강판 반덤핑 관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열연강판 가격은 톤당 80~85만 원 사이 박스권에서 횡보하여 가격 상승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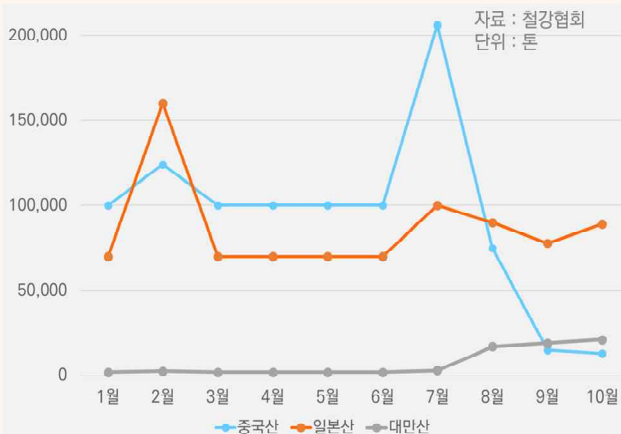


’20년대 중반부터 일본·중국산 열연강판의 저가 공세로 국내 철강업계는 수익성 저하 문제를 겪음. 이에 현대제철이 작년 12월 반덤핑 조사를 제소하여 올해 반덤핑 관세가 잠정적으로 시행됨

* 일본산 열연강판은 내수시장 대비 35~40% 낮은 가격에 공급되었으며, 중국산 또한 10~20% 낮은 가격에 공급되었음

▶ 그럼에도 열연강판의 가격이 정상화되지 못한 이유는 대만산 열연강판의 수입 증가와 일본·중국산 제품의 보세구역을 통한 우회 수입으로 인해 반덤핑 관세 부과의 효과가 상쇄되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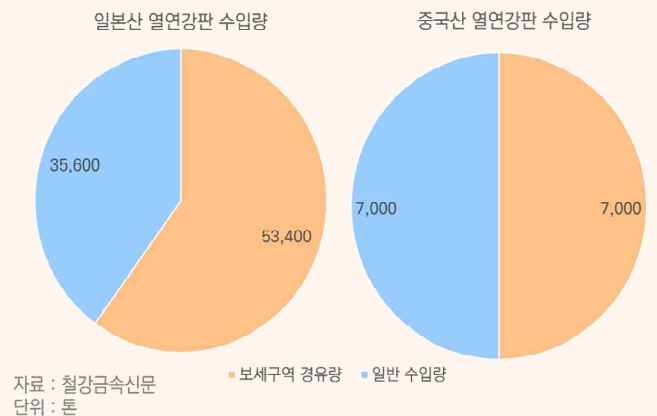
대만산 제품수입 전년대비 2,689% 폭등



· 일본·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 대만산 제품이 그 공백을 채움. 10월 국내 열연강판 수입량에서 대만산이 21,000톤 (전년 대비 2,689% 증가)을 기록하며 중국산을 넘어섬

· 수입 업계에서는 품질이나 납기 측면에서도 대만산을 선호하여, 국산 제품 가격 인상 효과가 제한되고 있음

일본·중국산 제품 50% 이상 보세구역 우회수입



· 업계에 따르면, 일본산 열연강판 수입량의 약 60%, 중국산 수입량의 약 50%가 보세구역을 통해 들어오고 있음

· 이중 실제로 재수출되는 물량은 40%에 불과하며, 나머지 60% 가량은 사실상 국내 내수용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됨

출처: 철강금속신문(11.18., 10.21.), 매일경제(11.13.), 철강정보원(10.27.)

③ AI가 선정한 공급망 이슈

중국, ESS CATL, 하이퍼스트롱과 대규모 ESS용 배터리 공급계약 체결

AI가 선정한 이슈

2025.11.10일부터 11.20일까지의 공급망 이슈를 분석한 결과, 11.14일 보도된 **“CATL과 하이퍼스트롱이 대규모로 ESS용 배터리 공급계약을 장기 체결한 것”**이 가장 시의성과 중요도가 높은 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Q. 이번 계약이 다른 ESS 배터리 공급계약과 다른 점은?

A. 이번 계약 규모는 3년간 200GWh로, 이는 올해 글로벌 ESS 수요의 약 30%에 달하며 이례적으로 대형 단일 고객이 전체 공급의 상당수를 선점하는 사례입니다.

Q. 이와 같은 대형 단일 프로젝트의 체결이 글로벌 ESS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A. CATL의 고급 ESS 제품이 하이퍼스트롱과 장기 독점 계약 형태로 공급되므로, 다른 기업들의 첨단 ESS 제품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또한, 리튬-인-철과 같은 원자재와 소재·부품 전반에 걸쳐 병목현상과 가격 상승 압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이번 계약이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에 시사하는 바는?

A. 고급 ESS 제품이 장기 계약을 통해 공급선 선점의 형태로 분배되면서, 기업들은 대형 고객 중심의 대응 전략과 생산 능력 확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기술·가격 경쟁력이 핵심이므로,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ESS, 특화형 에너지 및 시스템 기술 등으로 차별화된 전략의 구사가 필요합니다.

이슈 더 알아보기

PV 매거진은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 CATL과 중국 최대 규모 ESS 통합 기업인 하이퍼스트롱이 10년 장기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계약 세부 사항

구분	내용
계약 기간	2026. 1. 1. ~ 2035. 12. 31. (총 10년)
1단계 물량	2026~2028년 3년간 최소 200GWh 공급
공급 품목	주로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셀
계약 구조	매년 말 향후 3년 목표를 동적으로 갱신
추가 협력	ESS 프로젝트 펀드 공동 설립, 통합 플랫폼 구축

ESS는 장주기, 고안정성, 가성비, 화재위험 최소화가 가장 중요함. LFP 배터리는 니켈·코발트 등 희귀금속 대신 리튬·철·인 소재를 사용하려 저렴하고 리튬이온의 결합 구조 안정성이 뛰어나 폭발 위험이 낮아 ESS에 사용하기 적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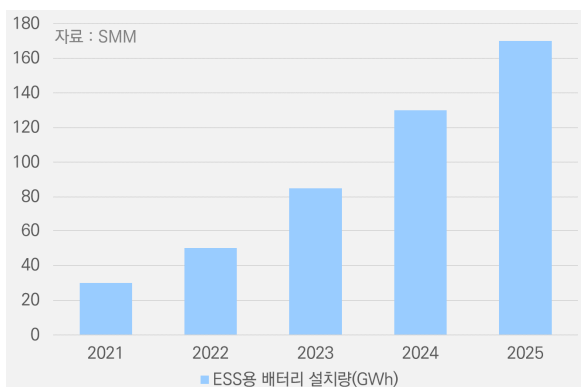
LFP vs 삼원계(NCM·NCA) 배터리 비교

기준	LFP	NCM·NCA
밀도	낮음(120~170 Wh/kg)	높음(180~250 Wh/kg)
안정성	매우 높음	중간~상
수명	최대 7,000회 충·방전	약 2,500회(ESS 불리)
원가	저렴	비싸고 변동성이 큼
화재위험	거의 없음	고밀도 셀의 경우 위험

출처: pv magazine(11.14.)

ESS용 배터리 수요, 공급을 초월

최근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발전, 스마트그리드, 대형 전력망 안정화 등으로 고성능 ESS에 대한 실질적 수요가 폭증하는 추세임.



· 글로벌 ESS용 배터리 설치량*은 2021년 이후 급성장했으며, 일부 기관들은 2025년 설치량을 150~170GWh 수준으로 보고 있음

* 배터리는 생산만으로 시장 수요를 대표할 수 없어, 실제 설치된 물량을 기준으로 실수요를 집계함

· 2024~2025년에는 미국·중국·유럽에서 대형 ESS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며 주로 LFP 배터리 셀 수요의 성장이 두드러짐. 또한, 위의 CATL-하이퍼스트롱의 계약만으로도 연간 67GWh 이상의 대량 공급이 이루어질 정도로 시장이 대형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

출처: SMM(4.30.), European Market Outlook for Battery Storage 2025-2029(5.7.)

산업·품목 심층 분석

글로벌, 반도체 AI 반도체 발전이 이끄는 첨단 제조산업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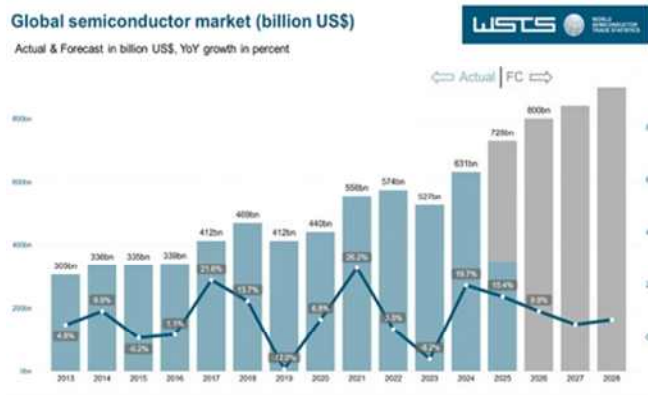
지난 10.31일,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경주 APEC 회의 기간에 한국 정부 및 4개의 주요 기업(삼성전자·SK그룹·현대차그룹·네이버클라우드)과 GPU 26만 장 공급 계약을 발표함. 총 14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이번 계약은 한국이 보유한 기존 GPU 물량(4.5만 장)의 5배 이상에 달하며, 우리나라가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3위 GPU 보유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산업·품목 심층 분석에서는 AI 반도체 칩 공급망의 핵심 자산인 GPU를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이 직면한 기회와 과제를 심층 분석하고자 함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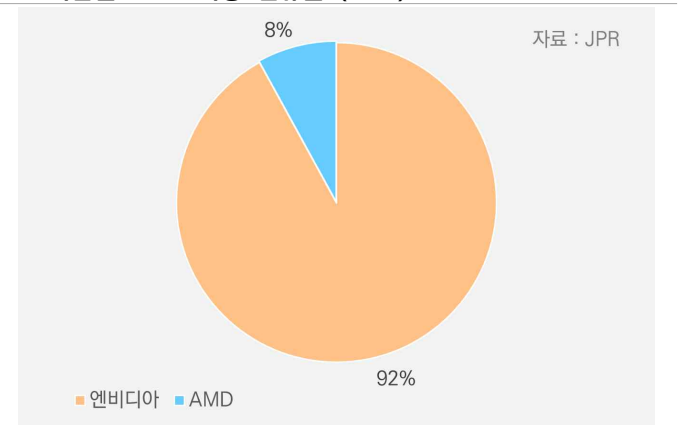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AI와 데이터센터 등 신기술 수요를 바탕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2024년 전 세계의 반도체 시장 규모는 약 6,820억 달러, 올해 추정치는 약 7,550억 달러임. 반도체 산업의 성장 중심에는 AI 반도체가 있음. AI 반도체는 병렬 연산으로 가능해진 대규모 데이터 처리, 실시간 추론 능력으로 기존 반도체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특화 작업을 해결하면서 전체 반도체 시장의 약 11~13%까지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음. 이는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 모델의 일상·대중화, 자율주행 등 데이터 수요의 급증에서 기인함

특히 GPU는 병렬 연산 처리에 강점을 보이며, AI 반도체 시장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GPU 시장은 2025년에 820~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GPU 시장은 엔비디아가 약 90~92%라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선도하고 있으며, AMD와 인텔이 그 뒤를 잇고 있음.

반도체 시장 규모 추이 ('13~'28e)



기업별 GPU 시장 점유율 ('25e)



(참고) AI 반도체의 종류

AI 반도체란 인공지능 처리에 최적화된 반도체로, 학습·추론 등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고성능, 고효율 전력으로 실행하는 반도체를 의미함. 즉, ▲딥러닝 및 머신러닝 등 AI 학습과 추론 연산에 특화되었으며 ▲병렬 연산 처리 능력이 있고 ▲높은 처리량과 빠른 메모리 대역폭을 갖추어 ▲데이터센터와 스마트폰·웨어러블 기기 등의 엣지 디바이스에서 AI 서비스에 사용되는 반도체가 AI 반도체임. 반면, 비(非) AI 반도체는 범용 연산을 통해 전통적인 ICT 작업을 수행함

이번에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 공급한 GPU는 AI 반도체 가속기의 일종임. AI 반도체 가속기란 인공지능 모델이 요구하는 대규모 수치 연산을 기존 CPU 대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하드웨어 장치임. GPU의 경우, 원래 그래픽 처리용으로 개발되었으나, 대규모 병렬 연산에 특화되어 AI 딥러닝 학습에 널리 사용되는 반도체임. GPU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가속기에는 NPU, TPU, FPGA 등이 있음

종류	GPU	NPU	TPU	FPGA
목적·정의	Graphics Processing Unit 그래픽 처리 및 대규모 병렬 연산을 위해 설계되어, 딥러닝 학습과 추론 등 AI 연산에 활용	Neural Processing Unit 딥러닝 추론에 특화된 AI 전용 프로세서로, 엣지 장치에 최적화	Tensor Processing Unit 구글이 행렬 연산에 초점을 맞춰 개발한 AI 딥러닝 학습 전용 칩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하드웨어 구조를 재프로그래밍하여 특수 알고리즘 구현이 가능
구조·연산	수천~수만 개의 코어로 구성되어 병렬 행렬 연산에 최적	실제 신경망 구조를 실리콘에 구현해 저전력 병렬 처리에 특화	행렬 곱셈 및 AI 추론에 특화되어 대규모 병렬처리에 특화	재구성 가능한 논리 소자로 맞춤형 병렬처리가 가능
장점	범용성이 높으며, 고성능 대규모 학습 능력이 있음	저전력으로 실시간 추론이 가능하여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	클라우드 기반의 딥러닝 학습과 초고속·고효율 처리에 특화	유연성이 높으며, 다양한 알고리즘에 맞춤화 가능
단점	높은 전력·비용 소모, 엣지 디바이스에는 부적합	범용성 및 구조적 유연성 측면에서 GPU에 열세	구글 내 사용 위주로, 제3사·생태계 제약이 있음	개발 복잡성
활용	데이터센터, 서버, AI 대규모 학습, 그래픽, 고성능 컴퓨팅	스마트폰, IoT 등 엣지 단말기의 실시간 AI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대규모 머신러닝 연구	특수 알고리즘 실험, 프로토타이핑, 저용량 AI 서비스
대표 제품	엔비디아 H100/A100, AMD MI300	애플 뉴럴 엔진, 퀄컴 NPU, 삼성 NPU	구글 TPU v4/v5	자일링스, 인텔 FPGA

엔비디아 GPU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

최근 엔비디아 GPU, 특히 최첨단 블랙웰 칩을 둘러싼 국제 정세와 산업계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음. 지난 11.2일, 트럼프 美 대통령은 블랙웰 시리즈를 포함한 최신 엔비디아 칩의 수출을 전면적으로 막겠다는 규제 의지를 밝혔음. 이는 지난 10월,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주요 4개 기업(삼성전자·SK그룹·현대차그룹·네이버 클라우드)에 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한 것과 상충함. 따라서 트럼프의 발언과 美 행정부의 기조가 유지될 경우, 엔비디아의 GPU 공급 전망은 현재로서 불투명해진 상황임

* 이번에 엔비디아가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GPU 26만 장에는 'GB200 그레이스 블랙웰'이 다수며, 'RTX 6000 시리즈'도 일부 혼합될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의 수출통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님. 작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최첨단 AI 반도체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올해 4월에는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특화용 H20 GPU 등에 대한 직접적인 수출금지 방침을 정한 바 있음.

이에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올해 초부터 반도체 산업 자립 노력을 가속함.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AI 칩 개발을 본격화했으나, 그럼에도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 칩에 대한 선호 현상이 두드러짐. 이에 화웨이,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들은 동남아 등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입 전략을 본격화하였고, 실제로 최근 자카르타를 경유해 엔비디아 블랙웰 칩 2,300개를 확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함.

블랙웰 칩이 이토록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독보적인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임. 블랙웰은 2,080억 개의 트랜지스터, 그리고 최대 192GB의 최신 HBM3e 초고속 메모리를 갖췄으며, 신규 텐서 코어와 2세대 트랜스포머 엔진이 탑재되어 병목 현상 없이 연산량을 처리할 수 있음. 또한, CUDA* 등 전용 API와 툴킷이 오랜 기간 축적되어 대형 스타트업부터 연구기관, 클라우드까지 표준 인프라로 자리잡음.

*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병렬 컴퓨팅 플랫폼 및 프로그래밍 모델

AI 팩토리와 AI 반도체의 결합, 첨단 제조 리더십의 핵심

지난 10월 엔비디아와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이 반도체 협업을 발표할 당시, 한국의 첨단 제조산업의 지형을 바꿀 것으로 기대했던 것 중 하나는 단연 AI 팩토리의 설립이었음. AI 팩토리란 인공지능 모델 학습 및 추론, 빅데이터 분석, 고성능 컴퓨팅을 공장처럼 대규모로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를 의미함. 즉, 데이터센터를 인공지능화 한 것으로, AI 반도체를 활용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며,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이고 복잡한 의사결정을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음

엔비디아는 자사 GPU와 전용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결합해 AI 팩토리 구현 표준을 만들고, 세계 각국 정부 및 대기업들과 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특히, 설계→생산→품질관리로 이어지는 제조 전 주기에서 생산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학습하여 신규 제품 개발 속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음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공동으로 전 세계 최대 수준의 반도체 AI 팩토리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양사는 반도체 생산의 전 과정을 AI가 주도하는 스마트 공장에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5만 개 이상의 GPU를 도입할 계획임. SK그룹은 반도체 데이터센터와 통신을 결합한 '그룹형 AI 팩토리' 플랫폼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LG 전자는 제조·냉각·피지컬 AI 분야에서 엔비디아 표준 플랫폼 도입을 준비하고 있음. 현대자동차그룹은 블랙웰 GPU 기반의 AI 팩토리와 AI 기술센터를 구축하여 자율주행 플랫폼 및 모빌리티 인공지능 핵심 인프라로 삼는 국가 AI 클러스터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출처

- GPU Market Size & Share Analysis - Growth Trends & Forecasts (2025 - 2030). (2025). Mordor Intelligence.
<https://www.mordorintelligence.com/industry-reports/graphics-processing-unit-market>
- Jeroen kusters. (2025, February 14). 2025 Global Semiconductor Industry Outlook. Deloitte.
<https://www.deloitte.com/us/en/insights/industry/technology/technology-media-telecom-outlooks/semiconductor-industry-outlook.html>
- What Are AI Semiconductors? Power Problems in Data Centers and Game-Changing Technology. (2025, July 11). Rapidus.
<https://www.rapidus.inc/en/tech/te0003/>
- Wen-ye lee. (2025, November 7). Nvidia CEO Says No "active Discussions" on Selling Blackwell Chip to China.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
- Lingling wei. (2025, November 3). Trump Officials Torpedoed Nvidia's Push to Export AI Chips to China. Reuters.
<https://www.wsj.com/world/china/>
- 강태우. (2025, October 31). 엔비디아, 韓에 GPU 26만장 분다...삼성·SK·현대차와 'AI 동맹'(종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1030216651003>
- 조성흠. (2025, October 31). 삼성전자, 엔비디아와 업계 최대 AI팩토리 구축..."제조업 혁신".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1031106700003>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에너지 인도, 수입선 다변화 위해 미국산 LPG 수입 계약 체결

인도 석유천연가스부 장관은 국영정유사 3곳*이 공동으로 미국산 액화석유가스(LPG) 수입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힘 * 인디언 오일, 바라트 페트롤리움, 힌두스탄 페트롤리움

- 이에 따라 인도는 2026년부터 매년 220만 톤의 미국산 LPG를 수입하게 되며, 이는 인도의 전체 LPG 수입량의 약 10%에 달함
- 이번 계약은 인도와 미국 양국이 상호관세 인하 협상을 벌이는 중에 체결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추가관세 25%를 포함하여 총 5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출처: The Indian Express(11.18.)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1월 2주)

비철금속 | 금리인하 기대 및 생산 차질로 동 가격↑, 재고 증가 및 수요 약세로 니켈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10월	전년비(%)	11.1주	11.2주	전주비(%)
동	9,147	9,667	5.7%	10,704	10,840	1.3%
니켈	16,812	15,235	△9.4%	14,908	14,828	△0.5%
아연	2,779	2,806	1.0%	3,199	3,217	0.6%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동) 美 섯다운이 종료된 가운데, 英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및 메이저 광산의 생산 차질에 따라 수급이 빠듯하여 가격 상방 압력 발생

(니켈) 글로벌 재고 증가 및 中 경기둔화에 따른 스테인리스 수요 약세로 인해 가격 하방 압력 발생

철강 | 中 경기둔화로 인한 철광석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10월	전년비(%)	11.1주	11.2주	전주비(%)
연료탄	136.43	107.99	△20.8%	113.68	112.04	△1.4%
원료탄	240.90	185.20	△23.1%	196.50	195.10	△0.7%
철광석	109.89	101.34	△7.8%	104.30	102.47	△1.8%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 분광)

(유연탄) 中 경기 부진으로 인한 연료탄 수입 감소로 가격 하방 압력 발생

(철광석) 中 경기둔화로 인한 철강재 수요 위축 및 재고 증가로 인한 가격 하방 압력 발생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1월 2주)

희소금속 | 원료 가격 상승 및 전기차 산업 호조로 탄산·수산화리튬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10월	전년비(%)	11.1주	11.2주	전주비(%)
페로망간	1,201	1,073	△10.6%	1,028	1,028	-
탄산리튬	12,526	9,900	△21.0%	11,174	11,862	6.2%
수산화리튬	11,398	9,478	△16.8%	10,823	10,976	1.4%
코발트 (U\$/lb)	16.25	18.68	14.9%	25.0	25.0	-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257,362	246,116	△4.4%	250,000	245,800	△1.7%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55,684	69,822	25.4%	100,900	104,100	3.2%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 (탄산리튬) 中 내 전기차 판매 호조와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으로 인한 수요 상승 및 원재료(스포튬민) 가격 상승에 따라 탄산리튬 가격 상승
- ☐ (수산화리튬) 원재료 가격 상승 및 하이니켈 배터리 양극재 수요 회복 기대에 따라 탄산리튬과 함께 가격 상승

에너지 | 美 연준 금리인하 및 러-우 양국 간 긴장으로 유가 ↓

품목	연평균 (U\$/bbl)			주간평균 (U\$/bbl)		
	'24년	'25년	전년비(U\$/bbl)	11.1주	11.2주	전주비(U\$/bbl)
두바이유	79.58	70.32	△9.26	65.46	64.93	△0.53
브렌트유	79.86	69.01	△10.84	63.97	63.73	△0.24
WTI	75.76	65.63	△10.13	60.08	59.59	△0.49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 (원유) IEA·OPEC 등 주요 기관의 수급 전망 보고서 발표 이후 시장 내 공급과잉 우려가 심화되면서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
- ☞ 단, 지난 10월 발표된 美의 대러제재 발효일이 다가오며 러시아 석유 공급의 단기적 감소 가능성이 부각되며 상기 유가 하락분을 일부 상쇄
 - ☞ 또한, 美 연방정부의 섣다운 종료 이후에 따른 소비 회복세로 인한 석유 수요 증가 기대 역시 유가 상승 압력을 일부 상쇄

월간 공급망

◆ 미국 중·대형 트럭 신규 관세 조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작성 KOTRA 워싱턴D.C.무역관

1. 주요 내용

📌 중·대형 트럭 및 버스 신규 관세 발표 및 자동차 부품 관세 상쇄 프로그램 연장

- ▶ 백악관은 10월 17일, 11월 1일부터 중·대형 트럭 수입품에 25%, 버스에 10%의 국가안보(무역확장법 제232조) 기반 신규 관세 부과 공표
- ▶ 아울러, 미 자동차 제조업체의 수입부품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 관세 상쇄 프로그램(offset program)'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상쇄율 3.75% 유지 발표

2. 신규 관세조치 및 상쇄 프로그램

📌 국가안보상 트럭·버스 공급망 강화와 국내 생산 확대 유도 목적

① 트럭 및 부품: 11월 1일부터 중·대형 트럭(Class 3~8형) 및 부품에 25% 관세

- ▶ 대상은 대형 픽업트럭, 화물·이사 트럭, 덤프트럭, 트랙터 등 대부분의 상용 트럭이며, 엔진·변속기·타이어·새시 등 주요 부품도 포함
- ▶ USMCA 기준을 충족한 부품은 미 상무부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비(非)미국산 원가 판단 절차를 마련할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

* USMCA 특혜 대상 차량의 경우, 비(非)미국산 원산지 부분에만 25% 관세 적용

② 버스: 스쿨버스·도시형 버스·모터코치(장거리용 버스)에 10% 관세 부과

- ▶ 트럭과는 별도로 분류되어 버스 제조·운송업계의 명확한 정책 구분 조치, USMCA 기준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세율 적용

*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232조 관세 및 상호보복관세와 중복되지 않음.

③ 상쇄 프로그램: 2025~2030년까지 미국 내 조립 트럭 총액의 3.75%

- ▶ 국내 트럭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2025~2030년까지 미국 내 조립 트럭 총액의 3.75%에 해당하는 관세 상쇄 인센티브 제공
- ▶ '미국 내에서 생산된 트럭(또는 엔진)의 전체 가치 중 15%에 25% 관세가 부과될 때 발생하는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 ▶ 트럭 부품 제조사는 이 상쇄액을 사용해 자사 트럭 부품에 대한 232조 관세 납부액을 감면가능하며, 트럭 엔진 제조사에도 동일한 프로그램이 적용
- ▶ 자동차 산업과 부품 공급망의 구조적 유사성을 고려해, 기존 자동차 232조 관세 프로그램도 2030년까지 연장 및 3.75% 상쇄율로 조정

〈중·대형 차량 관세 조치 및 자동차 부품 상쇄 프로그램〉

구분	주요 대상	관세율	상쇄율	적용시기	비고
중·대형 트럭	Class 3~8 수입 트럭	25%	3.75% (생산기반 상쇄)	2025.11.1. ~2030.10.31.	USMCA 역내산은 미국산 함량 제외한 비(非)미국산 가치에만 관세 적용
버스	학교·도시·관광·장거리용 버스	10%	해당 없음	2025.11.1. 시행	232 조사 대상 외 관련 산업까지 확대 적용
트럭 부품	트럭 조립용 부품 (USMCA 역내 포함)	최대 25%	3.75% (트럭 제조사 상쇄 가능)	절차 확정 전 유예	향후 비(非)미국산 가치 산정 절차 마련 예정
엔진 부품	트럭 및 자동차 엔진 제조사	최대 25%	3.75%	2025.11.1. ~2030.10.31.	신규 상쇄 프로그램, 조립 생산액 기준 산정
철강·알루미늄	차량 생산용 소재 (USMCA 대상)	최대 50%	감면 없음 (25%까지 인하 가능)	즉시	캐나다·멕시코에서 제련된 경우 감면 적용
자동차 부품	승용차용 수입 부품	최대 25%	3.75%	2025.4.2. ~2030.4.30.	기존 프로그램 3년 연장 및 상쇄율 유지

자료: 백악관 보도자료 및 연방 관보, 현지 로펌 자료 종합

3. 현지 반응 및 전망

- ▶ 미국 업계와 언론은 새 232조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애프터마켓, 정비·유통망 비용 상승과 공급망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 ▶ 현지에서는 엔진, 변속기, 전장시스템, 단조·주조 부품 등 글로벌 조달 비중이 높은 품목의 원가가 직접 인상될 것으로 예상, 특히 브라질·인도·유럽·아시아산 부품 조달업체들이 즉각적 영향권에 있다고 분석
- ▶ 비(非)미국산 부품 함량 평가 기준과 무관세 대상 판단 절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일부 제조업체는 행정리스크와 원산지 검증 부담이 동시에 가중된 상황
- ▶ 232조 관세는 비(非)미국산 가치(non-U.S. content)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국내 조립 차량의 미국산 부품 비율 확대와 USMCA 적격성 입증 강화가 불가피할 전망
- ▶ EU·일본 등은 기존 승용차 관세(15%)에서 저율 관세 적용을 받지만, 이번 트럭 관세는 별도 품목으로 기본세율 25%가 적용될 가능성 높음. (출처: 로이터)

* 향후 개별 협상 결과에 따라 일부 교역국에 한해 조정 가능성은 존재

- ▶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조치가 북미 지역 내 상용차 생산·재제조 생태계 강화를 촉진하며, 상용차 산업의 자급률 제고 및 공급망 재편 가속화 전망
- ▶ USMCA 체제 하에서 북미 내 생산·조립 기업이 유리한 경쟁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서,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주물·단조, 전장부품, 리제너레이션(재제조) 설비 투자와 합작법인 설립 확대 예상 (Supplychain Dive)
- ▶ 또한 중·소 부품사(2·3차 공급망)는 OEM 및 후시장 수요 확대로 중장기적 수혜가 기대되며, 특히 전자 제어장치(ADAS), 제동시스템, 베어링 등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 분야의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

▶ 출처

백악관 팩트시트, 현지 언론(폴리티코, 인사이트, 로이터 등), 현지 로펌(National Law Review, DSG, AKIN), 워싱턴 DC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공급망 더 알아보기

아시아 탄소 가격제 현황과 시사점

작성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 서미건 인턴 원문 IEEFA(2025.9월)

기후 변화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아시아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높은 배출 집약도를 보인다. 아시아는 연간 탄소 시장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고, 탄소 가격제를 효과적인 탈탄소화 도구로 전환하기 위해서 다각적 전략이 필요하다.

탄소 배출 감축의 필요성

- ▶ 아시아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로 인해 전 세계 평균보다 두 배 가까운 속도로 온난화 진행 중
-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해외 탈탄소 규제 시 철강·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예정으로, 관련 기업들의 대응이 필요

*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

세 가지 주요한 방식의 탄소 가격 책정

- ▶ 탄소세 제도는 배출된 온실가스에 단위당 고정 가격을 부과하여 가격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단순히 세금을 내며 배출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배출 감축을 보장하지는 않음
- ▶ 배출권 거래 제도(ETS)는 총배출량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참여 기관들이 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강도 기반 또는 총량 기반 상한선 설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 가능
- ▶ 탄소 크레딧 메커니즘은 배출량에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는 프로젝트나 활동에서 탄소 배출 감축 시 거래 가능한 크레딧을 생성하는 제도

구 분	탄소세	배출권 거래 제도(ETS)
규제 방식	과세 - 의무적	대상 범위 및 업종에 따라 상이
가격 불확실성	낮음(CO ₂ 톤당 고정 가격)	높음(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
탄소배출 감축	변동적	높음(상한선이 신뢰할 수 있고 고정된 경우)
행정 집행	세무 당국을 통해 부과(간단)	탄소배출량 측정, 보고, 검증 필요(복잡)
적용 범위	광범위	주로 에너지 집약적 부문을 포괄
제도 수용성	제도가 공정하게 설계된 경우 높음	혼합적(기업 친화적으로 인식 가능)

□ 아시아 탄소 가격제 도입 현황과 문제점

- 아시아 국가 중 ETS 도입국은 한국, 중국,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으로 부문별 적용 범위, 감축 대상 온실가스 종류, 배출량 설정 방식이 국가별로 상이
 - ▶ (한국)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9%를 탄소 가격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며, 이산화탄소(CO₂) 외에도 메탄(CH₄), 이산화질소(N₂O) 등 다양한 가스에 적용
 - ▶ (중국) 최근 전력 부문을 넘어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등의 산업으로 확대 적용을 추진하여 자국 내 배출량의 60%를 규제
 - ▶ (카자흐스탄) 자국 내 CO₂ 배출량의 약 50%에 탄소 가격제 적용
 - ▶ (인도네시아) 현재는 전력 부문에 한정해서 적용 중, 탄소세와 결합한 하이브리드 제도로 발전시킬 계획이나 도입이 순연
- *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를 결합해, 기업이 정해진 배출 한도를 초과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세금을 납부하도록 설계한 방식
- 일본과 싱가포르를 탄소세를 선택하였으며, 양국 모두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적용 대상에 포함
 - ▶ (일본) 국가 차원의 탄소세와 함께 도쿄·사이타마 ETS 등 지방제도 병행
 - ▶ (싱가포르) 대형 산업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폭넓게 적용, 단계적으로 세율 인상 계획
- 아시아 탄소 가격제는 도입 국가 확대라는 긍정적인 흐름 속에 있지만, 가격 및 적용 범위의 한계, 제도 설계 미흡이라는 공통의 과제에 직면
 - ▶ 낮은 가격: 대부분 국가의 탄소 가격은 20달러 미만으로,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수준(2023년 50~100달러)에 미달
 - * 한국과 중국은 초기 무상 할당으로 인한 과잉 공급 문제로 시장 가격이 낮게 형성
 - ▶ 제한적인 적용 범위: 다수 국가가 전력 및 중공업에 한정하여 적용, 건축·수송·농업 등은 제외
 - ▶ 중국은 집약도 기반 상한*을 적용해, 경제성장 시 총배출량 증가 가능성 상존
 - * 집약도 기반 상한 : 제품 단위당 배출 기준치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생산량 증가 시 허용 배출량도 연동하여 증가
 - ▶ 인도네시아는 제도 시행이 지연 중

□ 한국의 ETS 개선 방향

- 한국은 제4차 기본계획(2026~2030)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
 - ▶ 총량 관리 강화: 배출 허용 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예비분*을 총량에 포함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기여
 - * 배출권 거래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정한 예비분
 - ▶ 유상 할당 확대: 발전 부문 중심으로 유상 할당 비율을 대폭 향상하여 전력 생산에도 탄소 비용을 반영하도록 유도함. 산업 부문도 기술 성숙도와 경쟁력에 따라 점진 확대
 - ▶ 배출효율기준 기반 할당 방식 도입: 동일·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간의 효율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배출 효율이 우수한 기업에 유리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이 스스로 탄소배출 효율을 높이도록 인센티브 마련

- ▶ **시장 기능 확대:** 배출권 이월 제한 완화, 모든 할당 업체 및 제3자의 경매시장 참여 허용,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K-MSR)* 등 **안전장치 도입으로 급격한 가격 하락 방지**

*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경매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급균형 조절

- ▶ **기업 지원:** 유상 할당 수입금을 CCUS(탄소 포집·저장), DAC(직접 공기포집)* 등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재투자

* 직접 공기 포집 기술(DAC, Direct Air Capture): 이미 배출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

➡ 이는 한국 ETS가 '양적 포괄성'에서 '질적 포괄성'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음

📌 중국의 ETS 개선 방향

➡ IEEFA 보고서는 중국 ETS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함

- ▶ **총량(cap) 기반 전환으로** 기업이 특정 기간 배출할 수 있는 총배출 절대량에 상한을 두어 실제 감축 효과 확보
- ▶ 초기 단계부터 경매제를 도입하여 가격 신호를 강화하고 과잉 할당 문제를 방지
- ▶ 기업이 보고하는 배출량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MRV(측정·보고·검증)제도의 엄격한 개선으로 투명성 강화
- ▶ 전력 중심에서 철강·시멘트·알루미늄 등 중공업 전 부문으로 단계적인 적용 범위 확대 필요

➡ 중국의 ETS 제도 개선은 세계 최대 배출국의 감축 실효성 제고라는 글로벌 의의가 있음

📌 시사점: 에너지 전환과 수소 기술 등 보완 수단

- ➡ 탄소 가격제만으로는 충분한 감축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완적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순환, 수소·CCUS 등 혁신 기술 도입이 필요
- ➡ EU·미국 등 주요국은 배출권 경매 수익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에 재투자 중, **한국도 해당 수익을 저탄소 기술 투자와 에너지 전환에 투입할 계획**
 - ▶ 또한, 한국은 전력 발전 및 소비 구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 부문 유상 할당을 확대하고 전력 요금 내 탄소 비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
- ➡ 한국은 제4차 기본계획에서 수소환원제철, 수소 연료 기술을 탈탄소 핵심 기술군으로 포함
 - * 중국도 장기적으로 수소를 ETS 적용 산업군에 포함할 계획
 - ▶ 기업이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개발하거나 감축 신기술을 도입할 때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하면 **배출 감축 기술 도입 촉진 가능**
 - * 정부가 기업에 고정된 탄소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로, 행사가격이 시장 탄소 배출권 가격보다 높으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고, 반대의 경우 기업이 차액을 지급
- ➡ ETS와 연계된 금융상품, 컨설팅, 녹색 채권 등 파생 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해 기업 지원 및 신시장 창출의 기반 마련
- ➡ 따라서 탄소 가격제는 단순한 감축을 넘어, 녹색 시장 확대와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는 공급망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발전해야 함

공급망 소식통

2025 KOTRA 수출 중소기업 ESG 공시 대응 워크숍 (~11.20.)

작성 KOTRA 지역통상조사실

2025 KOTRA 수출 중소기업 ESG 공시 대응 워크숍

행사개요

일정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09:00 ~ 16:30
장소	코트라 본관 2층 강의실
대상	자동차 부품 및 수출 중소기업 해외 공급망 업체 20개사(선착순)
참가비	무료
주요내용	글로벌 공시 프레임 진단, 공시 데이터 수집/입력 실습, 로드맵 수립, 지속가능공시 보고서 정성 데이터 템플릿 활용 등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09:00 ~ 10:30	글로벌 공시 프레임과 수준진단	자가진단 활용법
10:30 ~ 12:30	공시 데이터 수집 및 입력 실습	Excel
12:30 ~ 13:30	휴식	
13:30 ~ 14:30	솔루션 기반 데이터 수집 및 로드맵 수립	
14:30 ~ 16:00	지속가능공시 보고서 정성데이터 템플릿 활용	PPTX
16:00 ~ 16:30	만족도 조사 및 정리	

참가신청 안내

신청기한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신청인원	기업별 최대 2인까지만 신청 가능 ※ 실습을 위한 노트북 개별 지참

신청QR



주관	ESG경영혁신실
문의	ESG경영혁신실 김진우 대리 Tel 02.3460.3493 E-mail dkiove@kotra.or.kr

글로벌 경제지표 ['25.11.18일 (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구 분	'23말	'24말	'25.8말	11/14	11/17	11/18	전일비	전년말비
₩/U\$	1,288.00	1,472.50	1,390.10	1,457.00	1,458.00	1,465.30	0.50%	△0.49%
선물환(NDF, 1월물)	1,286.80	1,473.80	1,388.70	1,457.60	1,459.50	1,463.00	0.24%	△0.73%
₩/CNY	181.37	202.38	195.08	205.65	205.51	205.97	0.22%	1.77%
₩/¥100	912.25	932.67	945.52	942.80	942.50	944.90	0.25%	1.31%
¥/U\$	141.19	157.88	147.02	154.54	154.70	155.07	0.24%	△1.78%
U\$/EUR€	1.1105	1.0429	1.1669	1.1351	1.1600	1.1595	△0.04%	11.18%
CNY/U\$	7.1092	7.2992	7.1303	7.0957	7.1046	7.1116	0.10%	△2.57%

* '24년 평균 환율: (₩/U\$) 1364.8원, (₩/¥100) 900.8원 / '25년 평균 환율('25.1.1일~현재): (₩/U\$) 1,415.71원, (₩/¥100) 952.51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4년 최저(해당일)	12/31('24년)	11/17	11/18	전일비	'24년 최저비	전년말비
원유(두바이)		70.53(11.18일)	75.94	64.63	64.48	△0.1	△5.8	△11.5
						△0.2%	△8.3%	△15.1%
철광석		89.35(9.23일)	100.00	105.30	105.20	△0.1	15.9	5.2
						△0.1%	17.7%	5.2%
비철 금속	구리	8,085.50(2.12일)	8,706.00	10,799.00	10,649.00	△150.0	2563.5	1943.0
						△1.4%	31.7%	22.3%
	알루미늄	2,110.00(1.22일)	2,516.50	2,798.00	2,749.50	△48.5	639.5	233.0
						△1.7%	30.3%	9.3%
	니켈	14,965.00(12.19일)	15,100.00	14,580.00	14,450.00	△130.0	△515.0	△650.0
						△0.9%	△3.4%	△4.3%

반도체

구 분	'23말	'24말	'25.8말	'25.9말	'25.10말	11/13	11/14	11/17	11월(~17)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1.74	1.75	5.56	6.59	8.45	10.13	10.73	10.90	9.66
(%, YoY)	△14.8	0.5	182.0	240.8	345.7	450.3	482.9	492.4	425.4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38	6.63	9.50	9.45	9.80	10.35	10.35	10.35	10.19
(%, YoY)	△2.3	3.9	47.9	39.5	45.4	53.9	53.9	55.1	52.6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12/29('23년)	12/27('24년)	10/31	11/7	11/14	전주비(11/7)	전년말비
SCFI	1759.57	2460.34	1550.70	1495.10	1451.38	△2.9%	△41.0%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12/22('23년)	12/24('24년)	1/2	11/13	11/14	11/17	11/18	전주비(11/17)	전년말비
BDI	2094	997	1029	2077	2125	2153	2216	2.9%	122.3%

